



담양군이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 60억원을 달성하며 전국적인 인기 기부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사진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왼쪽부터),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다.

누적 60억...담양 고향사랑기부 '눈에 띄네'

담양군이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 60억원을 달성하며 전국적인 인기 기부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22억4000만원을 모금한 데 이어, 2024년 23억원, 2025년 14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모금하며 올해 1월 누적 60억원을 돌파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총 1만1272명이 담양에 따뜻한 마음을 보냈다.

이 같은 성과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어온 체계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의 결실로 평가된다. 군은 인터넷 대형 포털 검색광고와 시즌별 이벤트를 통해 기부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대했다. 그 결과 많은 기부자들이 참여했고 연말 기부금 모금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올해도 온라인 홍보를 더욱 늘려 기부자와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3년 성과...전국서 1만1272명 동참 기금사업·답례품목 등 확대...복지·교육 강화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기부금을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투입하고 있다. 폭우 피해 복구 긴급 모금, 향촌노인복지관 재할·돌봄 사업, 유기동물 입양 프로젝트 지원 등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해 기부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올해부터는 소아청소년

과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도입해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기금사업도 확대된다. 2024년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지원, 담양읍 상인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향촌공동급식센터 운영과 청소년 독서동아리 지원을 추가해 총

5개 사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기부자 예우도 확대했다. 기아울러 청소년 영어·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아동·청소년 마음 돌봄 지원, 해충 방역 장비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답례품 경쟁력도 강화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담양 쌀, 한우, 딱갈비, 한과 등 기존 인기 품목에 더해 딸기, 담양온천 이용권, 국립정원문화원 반려식물 체험권, 효 소절집 체험권 등 신규 품목을 추가해 총 60개 품목, 170여개의 답례품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기부자 예우도 확대했다. 기부일로부터 1년간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대나무박물관, 소재원, 한재골 수목공원 등 공영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하고, 고액기부자에게는 기탁식과 죽녹원 한옥체험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이 모여 60억원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며 "기부금이 군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영산강 르네상스' 나주 영산강정원 입구 상징 표지석 설치

저류생태습지 중심축 세우...브랜드 가치 제고



나주시가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영산강정원 입구에 상징 표지석을 설치하며 '영산강 르네상스' 실현을 향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높이 4.7m(좌대 포함), 최대 가로 4.3m, 무게 21t 규모의 자연석 화강암 표지석을 기증받아 최근 영산강정원 입구에 설치했다. 표지석에는 '영산강정원' 한글 서체가 새겨져 정원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표지석은 국내 최대 57만평 저류 생태습지에 조성 중인 영산강정원의 힘찬

도약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방문객을 맞이 하는 대표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된다. 서체를 작성한 나주 출신 서예가 박원해씨는 "금성산 정상에서 백운(白雲)이 영산강을 감싸며 도약하는 형상을 서체에 담았다"고 밝히 나주의 자연과 역사적 상징성을 더했다. 표지석을 기증한 목포 출신 최문작씨는 "광주와 목포를 잇는 호남의 중심 물길인 영산강의 변명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증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1993년부터 무등산과 삼학도 등 호남 주요 명산과 명소에 40점이 넘는

표지석을 기증해 왔으며, 최 표지석 기증으로 세계 기네스북 기록 등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산강정원은 최근 축제 성과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데, 2024년 처음 열린 영산강축제에는 36만명이 방문했으며 2025년에는 44% 증가한 52만명이 찾으며 대표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표지석 설치는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상징적 이정표다"며 "영산강의 생태 자원과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와 문화를 결합해 세계적인 국가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섬 걷고 느껴요...여수 섬배움학교 체험을"

시, 내달 3~21일 참가자 접수...밥상·명상 등 진행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섬배움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 섬배움학교는 여수 섬의 문화·역사·환경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현장 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연중 상·하반기 총 14회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는 총 4회를 운영한다. '섬배움학교'는 안도(4월 8·18일), 연도(4월 22일·5월 9일)에서 진행되는 다. 참가자들은 섬의 문화와 역사, 환경 등 섬마을 고유의 특성을 배우며 섬마을 걷기, 어성, 명상, 체조, 섬 밥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전 국민 100명(회당 25명)이며, 이 중 회당 13명은 여수 외 지역민을 우선 선발해 전국 단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3월 3일부터 21일까지이며, 여수시OK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평생교육과(061-659-473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섬배움학교는 섬을 단순히 관광하는 것을 넘어, 섬의 삶과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여수의 섬을 직접 체험하며 관심과 공감대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완도군은 최근 일과 주거, 교육 등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에 기반이 될 '제2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완도, 청년 자립 기반 마련·역량 강화

일·주거·교육 등 정책 수립...41개 과제 단계적 추진

완도군이 일과 주거, 교육 등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했다. 24일 완도군에 따르면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에 기반이 될 '제2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 완도군의 청년 인구는 2025년 12월 말 기준 1만923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4.3%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은 변화된 정책 환

경과 완도 청년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했으며, 향후 5년간 청년들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담았다. 정책의 비전은 '청년이 다시 빛나는 완도'로 지역 청년들을 위한 '떠나고 싶지 않은 완도', 타 지역 청년들을 위한 '머물고 싶은 완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일 자리, 주거, 생활, 배움, 참여 등을 개별

정책이 아닌 '청년의 삶'에 연결된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계획을 재정비했다. 이에 일자리, 주거, 복지·금융, 교육·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의 총 41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국비, 도비, 군비를 연계해 총 300여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분야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창업·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블루푸드 창업 패키지', '어촌·영농 정착',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는 초기 정착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청년 공공 임대 주택'을 건립하

고,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및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을 마련했다. 복지·금융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과 '희망 디딤돌 통장', '신혼부부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교육·문화는 '장모도 장학금',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배움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권리 분야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발전 협의체 활동'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으로 정책 참여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화순, 정월대보름 전통 민속행사 개최

병오년 안녕·풍년 기원

화순군은 병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7개 면에서 새해의 소망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행사를 각각 개최한다. 세부적으로 3월 2일 한천농악(동북면 한천마을 일원)과 아사리 은행나무 당산제(이서면 아사마을 일원), 절동마을 당산제(사평면 절동마을 일원), 우봉마을 당산제(춘양면 우봉마을 일원), 쌍봉마을 당산제(이양면 쌍봉마을 일원)가 진행된다. 3일에는 관영리 벼수제(능주면 관영리 벼수거리)가 개최된다. 21일에는 가수리

집대 세우기(동북면 상가마을 일원)가 열린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당산제, 지신밟기, 농악, 집대 세우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도무형유산과 화순군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소중한 전통문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다. 마을 주민들이 추위가 돼 해당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다.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요즘 정월대보름 민속 행사는 마을 대대 이어온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